

전국 최대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 사업 속도

1조1000억원 규모 TF 대출약정 체결...신한·중기은행 등 10곳 참여
27만여㎡ 간척지에 LNG 저장탱크 3기·10만 t 급 전용 항만 등 구축

여수 묘도에 연간 300만 t 규모의 LNG를 공급할 수 있는 허브 터미널 사업이 프로젝트 금융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은 가동에 들어갈 경우 생산유발효과만 3조여원, 고용유발효과 1만 3000명 등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은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 개발사업을 위한 1조1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금융(PF)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PF 대출약정에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지역활성화펀드, 중소기업은행 등 10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6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사업으로 진행된 최대 규모로, PF 대출약정까지 체결된 전국 첫 사례다. 사업은 글로벌 경제 악화로 민간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연됐지만, 주력도시보증공사의 지역활성화 특례PF보증을 통해 상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높아진 탓에 PF 대출약정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 개발사업은 전남

도가 13억원, 여수시가 100억원을 출자하고 BS 한양, GS에너지가 투자했다. 묘도 일대 27만여㎡(8만 3000평)의 간척지에 1조 4362억 원을 투자해 LNG 저장탱크 3기, 10만 t 급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7년말 1·2호기, 2028년말 3호기 완공 후 2029년 3월 종합준공을 목표로 한다. 2029년부터 상업운행에 돌입해 약 20년간 여수·광양만권에 연 300만 t 규모의 산업용·발전용 LNG를 공급한다. 묘도터미널의 LNG 공급가격은 기존 LNG 대비 10% 이상 저렴할 것으로 예상돼 동부권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묘도 LNG 허브 터미널이 가동에 들어가면 생산유발효과 2조 8000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 3000명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취등록세와 소득, 재산세 등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관계자는 “LNG복합 발전, 집단에너지사업, LNG병커링사업 등 다양한 수요처에 LNG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물류, 금융, LNG 트레이딩 등 LNG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중심지를 구축해 LNG 시장의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패밀리랜드 놀이시설 점검 철저하게” 가정의 달을 앞두고 28일 광주시 북구 소속 직원과 민간전문가들이 생용동 패밀리랜드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제어장치, 레일 등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어린이날 황금 연휴 광주도심서 즐기자”

3일 시청 체험행사·5일 역사민속박물관 민속놀이 등 다양

제 103회 어린이날 황금 연휴기간(5월 3일~6일) 광주 도심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 30분 시청 앞 잔디광장(우천 시 시청 시민홀)에서 1시간 동안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다. 올해 어린이날 행사는 석가탄신일 등이 겹쳐 연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5일이 아닌 3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 공연부터 체험활동 등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풍성하게 마련됐다. 저글링 서커스, 유니버스 마술쇼 등 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DJ와 함께하는 현장 노래방, 어린이 랩댄스, 금은보화 보물찾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대형 에어바운스 2대를 설치해 아이들이 잔디 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네일·헤어·모자아트 체험, 가족액자·캐릭터 부채 만들기 등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먹거리부스에서는 솜사탕, 팝콘 등을 나눠준다. 시청 1층 시민홀에서는 ‘아동친화도시 광주’를 주제로 한 아동 사회작품 전시가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만점인 안전체험관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5월 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야외 광장에서 ‘5월 어린이·가족 한마당’ 행사도 개최된다. 페이스페인팅, 민속놀이, 무형문화유산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마술쇼, 풍선쇼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바블놀이, 도전! 미션 5종(볼링·다트·고무신 던지기 등), 솜사탕·팝콘 나눔, 포토박스 가족 네 컷 촬영, 무형문화유산 체험(나전칠장·의례음식장), 초크아트·페이스페인팅, 전통 민속놀이 등을 누구나 무료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특히 박물관 분관인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 무등산 분청사기전시실 등을 소개하는 홍보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광주시립도서관도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5월 한 달간 지역 3개 도서관(무등·산수·사직)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부터 공연, 전시, 연례 해제 이벤트까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프로그램 참여 접수는 도서관별로 사전 접수 및 현장 참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K-푸드’ 중심...전남 농수산물식품 글로벌 시장서 고공행진

1분기 수출액 1억 7916만달러
신선농산물 55%·음료 65% 급증

올해 1분기 전남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이 전년에 견줘 1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의 주력 수출품이자 ‘K-푸드’의 대표주자인 김과 쌀과 배 등 신선농산물, 유자차 등 음료가 수출을 견인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남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1억 7916만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 수출이 1억 2051만 달러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늘어난 액수다. 특히 김은 954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53.2%

를 차지하는 대표 수출품이었다. 김은 미국과 중국, 유럽 등지에서 맛은 물론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며 글로벌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신선농산물은 전년대보다 55% 증가한 984만 달러 수출액을 올렸다. 대표 품목은 쌀과 배, 파프리카, 키위 등으로 배는 대만, 키위는 일본에서 수출이 늘었다. 두 품종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51.4%, 1992%로 집계됐다. 음료는 963만 달러를 기록했다. 배와 유자음료 등 과일주스를 중심으로 전년대보다 64.7%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베트남이었다. 무엇보다 최근 미국발 ‘관세전쟁’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김, 음료, 유자차를 중심으로 전년대보다

39.6% 증가했다. 중국은 김, 분유, 오리털 수출이 많았고 일본은 김, 전복, 미역 등 수산물에 주를 이뤘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목포시가 3124만 달러(43.5% ↑)로 도내 최대 수출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목포는 김 수출 확대에 힘입어 수출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뒤이어 고흥군 2960만 달러(12.5% ↑), 신안군 2655만 달러(22.6% ↑) 순이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 세계 한류 확산과 건강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김과 음료를 중심으로 한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에 주력해 수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시민 서포터즈’ 공모

5월 23일까지 온라인 접수

광주시가 2025 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한다.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서포터즈의 응원·관람 지원으로 세계양궁선수권 대회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날부터 5월 23일까지 2025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 대회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서포터즈는 총 3000명(선착순) 규모로 9월 2일부터 28일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 서포터즈들은 경기 응원, 선수단 입·출국 환영·환송 등의 활동을 하고, 통역이 가능한 인원들은 선수단 통역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서포터즈는 6월 중 발대식을 갖고 7~8월 국제경기 규칙, 국제 에티켓, 응원 방법, 안전 교육 등을 받게 된다. 일반 시민, 대학생, 직능단체, 시민단체, 기업체, 체육 동호회 등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선교·포교활동, 영업활동 등을 위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신청은 광주시청과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5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서포터즈에게는 유니폼과 응원도구가 지급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표창이 수여된다. 자원봉사 실비 지원 기준에 따른 수당도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120빛고을센터, 광주시 자치행정과, 5개 지자체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5세계양궁선수권 대회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광주일대에서 열리고 이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2025세계장애인 양궁선수권 대회도 개최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생이 행복한 대학

동신대학교

대학의 주인공은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과 대학 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고, 졸업한 후에도 좋은 직업과 직장을 갖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취업이 잘 되니까

나를 키워주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창업금이 많으니까

캠퍼스가 좋으니까

2013, 2014, 2015, 2016, 2017,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최고 13년 중 12년간 / 졸업생 1천명 이상 일반대학 중

광주·전남 취업률 1위!

(교육부 발표 기준 / 대학정보 공시)

40

1985
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